9/19(금)
37회차

비상장기업IR

Korea START SCALE Day

주제 | 제약·바이오 비상장 기업

- 진에딧코리아
- 아이엔테라퓨틱스
- FNCT바이오텍
- 갤럭스
- 휴이노
- 지투이
- 뉴로엑스티
- 메디트릭스

삼성증권

비상장기업IR

Korea START SCALE Day

본 리포트는 9월 19일 비상장포럼 행사 (Korea Startup Scaleup Day) 참석 후 당사 리서치팀에서 작성한 후기(Takeaway 노트)입니다.

- 서근희 팀장 [이노베이션팀]
- 정동희 선임연구원 [이노베이션팀]
- 신수한 연구원 [이노베이션팀]

Contents

1
진에딧코리아
AI 기반 나노파티클 플랫폼 보유

2
아이엔테라퓨틱스
CNS 전문 이온 채널 타깃 치료제 개발 기업

3
FNCT바이오텍
CSF3 타깃 폐섬유증 치료제 FB-101 개발 기업

4
갤럭스
AI 기반 단백질 신약 설계 기업

5
휴이노
글로벌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6
지투이
중증 당뇨병 관리 서비스 '디아콘' 개발

7
뉴로엑스티
알츠하이머 정밀 치료를 향해

8
메디트릭스
마음건강 분야 특화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

진에딧코리아

AI 기반 나노파티클 플랫폼 보유

전무 김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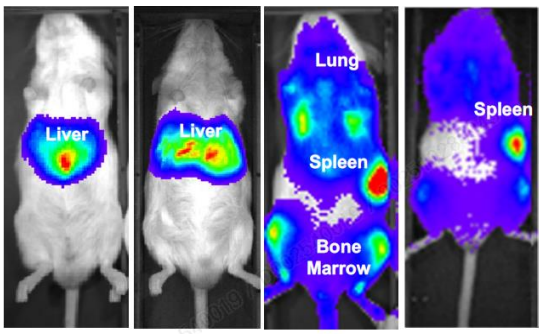
진에딧코리아는 차세대 유전자 기술 바탕 플랫폼 '나노갤럭시(NanoGalaxy)'를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 보유. 기존 기술과는 다른 면역 조절 기능, 전달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지적 재산권도 구축. 국내외 VC를 비롯, SK, 일라이 릴리 등의 투자 유치. 글로벌 제약사(제넨텍 등)와의 파트너십 보유.

나노갤럭시(NanoGalaxy): 기존의 Liquid 기반의 소수성 입자(LNP, Liquid Nanoparticle) 와 다른 형태의 폴리머 기반 친수성 나노파티클 (HNP, Hydrophilic Nanoparticle)로서 다양한 화학적 구조, 특징과 전달 특이성을 만들어낼 수 있음. AI에 기반한 구조적 특징 분석을 통해 스크리닝 및 평가를 진행. 폴리머 backbone에 다양한 화학적 특징을 가지는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붙이고, 구성 및 길이 등을 조정하며 큰 라이브러리를 생성, 실험적 스크리닝을 통해 원하는 장기 세포로 전달되는 폴리머를 찾아낼 수 있음. 유전자 치료제에서는 간이 아닌 곳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Liver detargeting), 면역 관용을 활용하는 기술이 혁신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나노갤럭시의 'Iteration Cycle'을 통해 다양한 profile을 가진 폴리머를 찾아낼 수 있음. 실제로 GEN-115는 쥐뿐 아니라 원숭이에서도 간이 아닌 비장으로의 약물 전달을 확인. 또한 원하는 면역 반응에 맞게 면역 관용 유도 또는 면역 활성화 조절 가능.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2019년, Editas Medicine과의 라이센싱을 시작으로, 2022년 Sarepta Therapeutics, 2024년에는 Genentech과 자가 면역 치료용 HNP 개발 파트너십 체결. 1,500만 달러 upfront, 최대 6억 2,900만 달러의 마일스톤 및 매출 로열티 포함. 비장에는 T세포와 같은 면역 세포가 많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특정 위치의 약물 전달 및 면역 관용 기술을 활용 가능.

향후 계획: 나노갤럭시라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조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ADC와 같이 항체와 나노입자를 합치거나, 면역 관용 등 새로운 MoA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진행 중. 또한 항암 백신(in vivo CAR-T) 등 새로운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으로, 다양한 데이터 발표 계획에 있음.

비장(항원제시세포)으로의 mRNA 전달



자료: 진에딧코리아, 삼성증권

아이엔테라퓨틱스

CNS 전문 이온 채널 타깃 치료제 개발 기업

CEO 박종덕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대웅제약 연구 자회사로, Small molecule 분야에서 CNS를 타깃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스핀오프 기업. 이온채널 평가 플랫폼 'VITVO™ (In Vitro to In Vivo)'와 핵심 파이프라인인 Nav1.7(Na+) 타깃 iN1011-N17(Aneratrigine)을 보유하고 있음. 이온 채널 타깃하는 물질을 위주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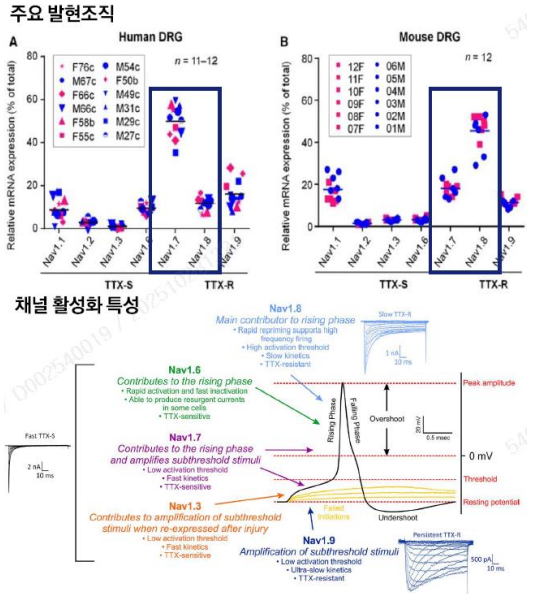
Nav1.7 타깃 iN1011-N17: Nav 1.7은 통증을 일으키는 전기 신호를 만드는 단백질로, 통증신호전달 경로 중 DRG(후근신경절)/TG(삼차신경절)에 주로 분포. iN1011-N17은 해당 단백질을 저해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기전. 비슷한 Na+계 채널로 Nav 1.8을 타깃하는 약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VRTX US)의 Suzetrigine이 있음. 동사는 iN1011-N17을 최근 미국의 바이오텍에 기술 이전 성공.

이온채널 평가 플랫폼 'VITVO™(In Vitro to In Vivo)': 세포 수준에서부터 조직, 동물 모델까지 전기 신호를 평가, 스크리닝. 인간유래 주요이온채널을 Qube384 HTS System을 통한 월 1만종 이상 약물 평가(In Vitro), 인간/동물 유래 조직에서의 전기신호 평가(Ex Vivo), 살아있는 질환동물모델에서 Brain, Ganglion 등 주요 조직의 전기 신호 평가(In Vivo) 진행. 생체 전기 생리학적 평가 방법론을 포함, 약 100개의 평가법을 구축하고 있음.

그 외 파이프라인: 신경세포 흥분조절 Kv7.2/3(K+) 타깃, Kv7.4(K+) 타깃, KCC2(K+/Cl-)타깃 등 다양한 타깃으로 후보 물질 도출을 진행 중.

투자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 2020년 Seed 단계 178억원, 2021년 시리즈 A 154억원, 2022년 Bridge 단계 260억원, 2025년 3분기 Series B 260억원(예정). 향후 1상 단계에서 라이센싱 아웃 목표, 다양한 제약사들에 태핑 중.

Nav 1.7 vs 1.8



자료: 아이엔테라퓨틱스, 삼성증권

FNCT바이오텍

CSF3 타깃 폐섬유증 치료제 FB-101 개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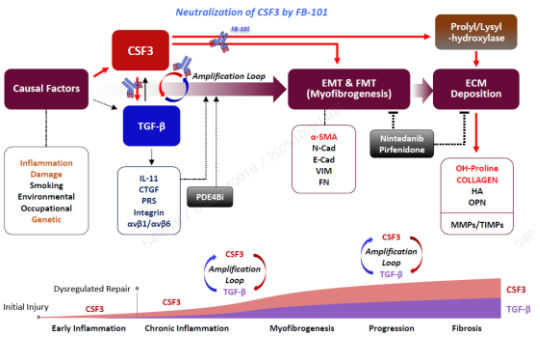
CEO 진영우

FNCT바이오텍은 'Fibrosis and Cancer Targeting', 즉 섬유증,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현재 FB-101 등 핵심 파이프라인 보유. 2021년 창업, 폐섬유증 치료제 기술(항체용도) 특허 국내 3건, 국외 2건(미국, 중국) 등록, 암치료제 기술 특허 국내 1건 등록. 그 외 폐섬유증 치료보조제 기술 또한 국내, PCT, 미국 각 1건씩 출원한 상태로 등 다수 지적재산권 확보 중. 2024년 암젠코리아의 골든티켓 수상으로 기술력을 인정. 현재 전임상 및 후보 물질 단계의 파이프라인 보유.

FB-101, CSF3 타깃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CSF3(Colony Stimulating Factor 3)에 대한 중화 단일클론 항체로, CSF3-TGF-베타 증폭 루프를 억제. 기존의 TGF-베타 치료제들은 급성 염증, 독성 등 문제로 임상 실패. 해당 파이프라인은 다른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에서 집중하고 있는 증상 컨트롤이 아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 TGF-베타가 폐포세포와 섬유화세포를 근섬유화세포로 바꾸며 콜라겐을 과도하게 생성. CSF3을 통해 TGF-베타를 조절함으로써 섬유화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접근을 제시. CSF3은 TGF-베타의 신호 경로의 상위 조절자로 기능하며, CSF3의 발현을 억제 시 섬유화 유도 핵심 매개체인 TGF-베타 및 그 하위 효과기들의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 CSF3과 TGF-베타는 상호 활성화를 통해 증폭 루프를 형성하는데, FB-101은 이를 억제. TGF-B의 정상 수준은 억제하며, 과도한 TGF-B만을 선택적으로 조절함. 이로 인해 결핍에 대한 문제 또한 해결. 폐섬유증 마우스 모델에서 탁월한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섬유화 질환의 바이오마커로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 강함.

향후 계획: 2025년 1월 시리즈 A 종료(70억원), 2025년 10월 시리즈 B 개시 예정(200억원). FB-101의 국가신약개발사업 선도 과제(2022년), 후보 과제(2024년) 선정. 다양한 제약사와 컨택 중이며, AI 플랫폼 개발, 파이프라인 개발,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

FB-101 작용 기전



자료: FNCT바이오텍, 삼성증권

갤럭스

AI 기반 단백질 신약 설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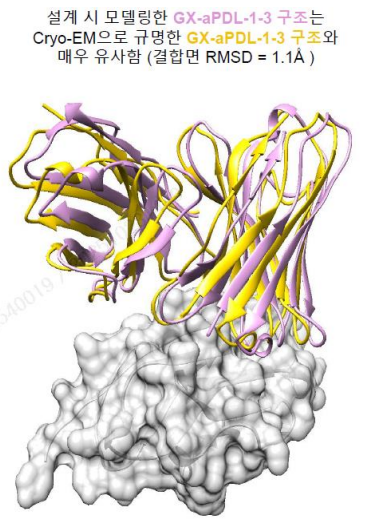
부사장 박태용

갤럭스는 2020년 설립된 AI기반 단백질 신약 설계 기업으로, 단백질 간 상호 작용(PPI)를 원자 수준에서 분석 및 신약 후보를 설계하는 플랫폼을 보유. 단순 AI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험을 수행 가능한 Wet Lab을 함께 운영하여 AI 설계 결과를 빠르게 검증 및 학습에 반영하는 AI-실험 통합 구조를 갖추고 있음. LG화학, 한올바이오파마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GaluxDesign™: 단백질 구조와 상호 작용의 물리적 원리 이해로, 모달리티와 타깃에 구애 없이 단백질을 설계. 1) 드노보 항체 설계: 에피톱 특이적 항체 설계로, mAB, Multi-specific Ab, ADC, VHH, CAR-T 등. 2) 드노보 일반 단백질 설계: 에피톱 특이적 일반 단백질 설계로, Mini-protein, Fab TCR, Peptide 등. 3) 다중 물성 최적화: 치료제 물성 최적화로, binding property, stability, expression, immunogenicity 등.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운 수천~수만 개의 조합을 시뮬레이션으로 반복하여 최적 구조를 찾아내며, 임상 성공률 향상 및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을 제공. 전 세계에서 드 노보로 항체 설계를 성공한 그룹은 4곳이 불과하며, 동사의 경우 9개 타깃에 대해 항체 설계에 성공(9pM, 시판 항체 수준 물성)하며 앞서 나가고 있음. 예시로, PD-L1 타깃에 대해서 기존 여러 단계에 물성 최적화가 필요하나, GaluxDesign을 통해 설계한 항체는 강한 PD-L1 결합력과 우수한 개발 적합성, 시판 항체 atezolizumab에 필적하는 기능성을 보여준 바 있음.

향후 성장 마일스톤 및 타임라인: 현재 누적 투자금 260억원, 협업 파트너는 15개사. 시리즈 B 펀딩은 200억원 이상을 목표. 2027년 초 Pre-IPO 펀딩 및 2027년 중순 IPO 진행 예정. 2026년 글로벌 탑 제약사와 파트너십 계약, 내부 파이프라인 물질 라이선스 아웃 목표. 향후 2027년~2028년에 안정적 현금흐름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PD-L1 항암 타깃 결합 구조 시뮬레이션과 실험



자료: 갤럭스, 삼성증권

휴이노

글로벌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CEO 길영준

휴이노는 의료 인공지능(AI)과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심전도 기반 부정맥 진단 및 예측 기술에 강점. Memo Care, Memo Cue, Memo Picaso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원격 모니터링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지정.

Memo Care, 부정맥 진단 AI+웨어러블: 메모케어는 부정맥 조기 진단을 위한 장기 심전도 솔루션. 현존하는 솔루션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움. Memo Patch는 최대 14일간 장기 심전도(ECG)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경량 디바이스. 국내 상급 종합병원(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삼성, 아산 등)에서 사용 중. AI가 대용량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 97.6%의 정확도로 11가지 부정맥을 분류, 빠른 리포트 생성. 미국 보험사 권고 기준(15일 측정)에 부합,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또한 확보.

Memo Cue,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메모큐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과 알람을 제공하는 MCT(Mobile Cardiac Telemetry) 시스템. 웨어러블 기기→게이트웨이→서버→통합관제 시스템의 통합 구성. 병원 내 설치 비용 및 도입 비용이 없어 즉시 도입 가능. 2025년 2월 보험수가(EX871)를 획득, 병원 입장에서는 메모케어와 병행 시 이중 청구 가능 구조로 수익성 향상.

Memo Picaso, 예후 예측 AI 모델: 메모피카소는 임상 악화 예측 모델로, 심정지나 사망 직전 단계 이전의 저혈압, 저산소, 쇼크 등 사전에 탐지. 서울대병원에서 식약처 임상 진행 중, 2026년 1분기 허가 목표. 경쟁사 대비 False Alarm의 비중이 낮고 정확도가 높아, 의료진의 효율 상향에 기여 가능. 향후 메모케어, 메모큐와도 연동, 진단-예측 통합 솔루션으로 확장 예정.

향후 계획: 2021년 시리즈 C(435억원 규모) 투자 유치한 바 있음. 유한양행, 존슨앤드존슨메드테크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진단-치료-예방-관리의 의료 전주기를 커버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갈 계획.

Memo Care의 Memo Patch

자료: 휴이노, 삼성증권

지투이

중증 당뇨병 관리 서비스 '디아콘' 개발

CEO 정창범

지투이는 2000년에 설립된 정밀 인슐린 주입기 및 통합 당뇨 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중증 당뇨병 관리 서비스인 '디아콘'을 개발. AI 기반 인슐린 펌프, 스마트 인슐린 펜, 당뇨 관리 앱을 결합한 통합형 솔루션을 제공.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디아콘 플랫폼이 활용, 2026년 기술 특례 상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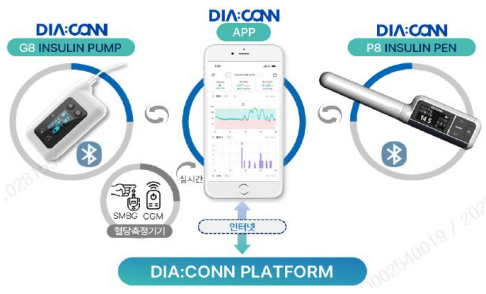
디아콘 플랫폼—인슐린 펌프: 현재 상용화된 디아콘 G8 인슐린 펌프는 인공췌장(APS) 2단계 PLGS-과도한 인슐린 주입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를 예방하는 기술을 적용. 2026년에는 디아콘 G9 출시 및 ez-LOOP(4.5단계 인공췌장 기반) 허가 임상 예상. 인공췌장 4단계(HLC) 펌프 임상에 돌입할 예정.

디아콘 플랫폼—스마트 인슐린 펜: 스마트펜 디아콘 P8은 최초의 4단계 펜. 디지털 치료제 개념으로, 정밀 주입뿐 아니라 주입량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환자 및 의료진에게 피드백을 제공. 2025년 임상 시험 완료, 결과 보고서 진행 중. 또한 CGM(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알고리즘에 기반한 차세대 스마트 인슐린 펜인 P8 Plus 허가 임상 진행. 전 세계 최초 Pen-Type 인공췌장 5단계 허가 임상이며, 기존 P8에 코칭 기반 추가.

마케팅/영업 전략: 휴온스와 함께 구독 모델(월 19,800원~)로 P8 시장을 확대할 예정. 또한 미국 CGM 보험화 확대 사례를 통해, 국내 인슐린 IIT 환자 보험화의 빠른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 해외 진출로는 스마트 인슐린 펜 시장을 선도하는 유럽 시장(2027년 CE MDR 취득 목표)과 현재 인증을 완료(베트남) 및 진행 중(필리핀, 태국)인 동남아시아 시장을 최우선으로 공략할 예정. 성공적인 P8 임상시험 결과 및 현재 진행중인 P8 Plus 임상을 기반으로, Dexcom사를 포함한 글로벌 CGM사와의 파트너십 추진 계획.

IPO Roadmap: 2026년 4월 상장 심사 청구, 6월 반기 검토 제출, 8월 청구 승인 및 공모, 11월 주권 상장 목표. IPO 전/후(25년~27년)까지 총 51억원 투자금 활용 계획으로, 26년 말 흑자 전환 목표.

디아콘 통합 플랫폼



자료: 지투이, 삼성증권

뉴로엑스티

알츠하이머 정밀 치료를 향해

CEO 성준경

뉴로엑스티는 알츠하이머병 정밀 치료를 위한 AI 기반 영상 바이오마커 기술 개발 기업으로, 뇌 영상과 AI 기반 분석을 결합한 조기 진단 및 치료 반응 예측 솔루션을 개발 중. MRI 영상 분석을 통해 증산 발현 전 단계에서 뇌 구조 변화를 감지,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정밀의학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

MRI 기반 아밀로이드, 타우 예측 알고리즘: 기존 알츠하이머 진단은 PET 촬영을 통해 아밀로이드 양성을 확인하는데, PET 촬영은 고비용, 방사선 피폭 부작용, 낮은 접근성, 모니터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음. 뉴로엑스티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MRI 영상만으로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축적을 동시에 예측하는 AI 기술을 개발. 국내 상급종합병원 데이터를 학습한 거대 의료 AI 모델로, MRI만으로 타우 단백질의 위치와 단계를 약 90%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아밀로이드 예측 AUROC: 91.6%, 타우 예측 AUROC 94.6%).

AI 기반 치료 반응 예측 및 부작용(ARIA) 사전 진단: 두 번째 주요 기술은 AI기반 치료 반응 및 부작용 예측 모델. 글로벌 제약사와 협약을 통해 확보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 아밀로이드 표적 치료제(레카네맙, 도나네맙)의 효과가 타우 축적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 아밀로이드 제거 후 발생하는 부작용(ARIA)을 치료 전 약 80%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 임상 현장에서 안전한 투약 결정을 지원.

사업화 모델: 두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의료기기 형태로 주요 건강검진 센터 및 병원에 조기 진단 모델을 납품하는 것, 2)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중인 글로벌 제약사에 납품하는 것. 동반 진단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형태로 병원에 납품할 계획.

투자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 현시점 누적 투자 유치 총 136억원. 현재 美 FDA 인허가 진행 중. 하버드 및 존스홉킨스 의과대학과 협약 체결 이후 리얼월드 테스트 중. 글로벌 시장은 미국 타깃, 협약을 맺은 곳을 중심으로 지역별(서부/동부/중부) 진입 전략 구상 중.

개인별 치료 반응성에 따른 치료 결정

참고: 뉴로엑스티 내부 실험 결과 기준
자료: 뉴로엑스티, 삼성증권

메디트릭스

마음건강 분야 특화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

CEO 전홍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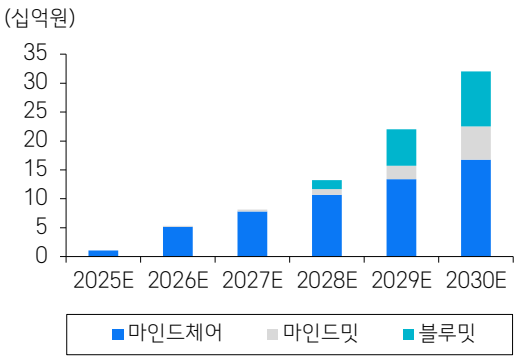
메디트릭스는 마음 건강 분야 특화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으로, 삼성전자 C랩 참여 이력과 딥테크 TIPS 선정 이력을 보유. 현재 정신 건강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환자 경험 중심, 의사 진료시간 부담 완화, 비약물치료 옵션 확대를 목표. 대표 제품으로 가상현실, 바이오피드백 모션 체어인 '마인드 체어', 가정용 CBT 기반 디지털 치료제 '블루밋', 정신 건강 자문 플랫폼 '마인드밋'을 보유.

마인드 체어, 모션 체어 시스템: 자동화된 가상현실-바이오 패드백-모션체어 시스템. 자신의 생체 신호를 안정시키는 훈련을 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 제공. 3축의 모션과 영상이 페어링되는 4세대 뉴로바이오피드백 구조로, 긴장 불안 이완, 호흡 수면 훈련 등 2분 교육과 8분 실행의 자동화 프로토콜 제공. 세션 종료시 생체신호 변화 리포트가 EMR로 연계되며, 자동 운용 가능.

블루밋·마인드밋으로 모바일/플랫폼 확장: 블루밋은 워치 등의 웨어러블을 이용한 가정용 CBT 인지행동 프로그램(8주)으로, 환자 교육, 생활 계획과 더불어 자동사고 및 문제 해결 훈련 등을 AI 기반 피드백으로 지원하고, 의료진이 결과지 확인 가능. 마인드밋은 학교 및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자문 플랫폼으로, 일반인이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 사연을 동영상으로 제공, 전문가에 의한 사연 해설 및 커뮤니티 제공. 향후 AI model을 탑재, 사용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투자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 Seed 10.5억원에서 시작하여 시리즈 A 투자금 30억원 유치 계획. 2025년 국내 출시, 2026년 베트남 출시, 2027년 미국 출시 이후 동남아 3국 출시할 계획. 2027년 IPO 준비 및 2029년 이후 KOSDAQ 기술 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메디트릭스 예상 매출 가이던스



자료: 메디트릭스, 삼성증권

MEMO

MEMO

삼성증권 리서치는 Korea StartUp ScaleUp 행사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주제를 보다 많은 독자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도록 매회 후기 노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지난 행사 후기 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21(금) 34회차

주제: IPO 목표달성을 앞둔 예비 유니콘 기업

- 휴런
- 하이센스바이오
- 파블로항공
- 리스큐어바이오사이언시스
-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후기 노트 바로가기

6/4(수) 35회차

주제: ETRI-삼성증권 공동주관 혁신투자포럼

- 알씨테크
- 제이엔웍스
- 셀키에이아이
- 가이온
- 딥인스펙션
- 비티이
- 옵티플
- 팜커넥트
- 비디오몬스터
- 에이아이세스
- 메디키나바이오
- 하이퍼클라우드

7/18(금) 36회차

주제: Founders' Club 멤버스데이

- 케어네이션
- 칩스케이
- 우나스텔라
- 위밋모빌리티
- 넥서스비
- 뉴빌리티
- 제엠제코
- 메디픽셀

▶후기 노트 바로가기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유망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비상장기업IR

Korea START SCALE UP Day

Korea Startup Scaleup Day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유망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하기 위해
삼성증권이 운영하는 멤버십 행사입니다.

* 본 프로그램은 멤버십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멤버십 정보 소개

When

- 2021년 8월부터
- **온라인 행사:** 매월 셋째주 금요일

How

- 멤버십에 등록하신 분들께 매달 멤버십 행사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 매달 공유되는 멤버십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링크에 접속합니다.

Who

- **청중**: VC, CVC, 주요 투자자
- **연사**: 분야별 유망 기업 8-10개사

Others

- 본 멤버십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 모든 일정의 참가는 자율입니다.

멤버십 신청 바로가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B0417호(2025.02.18 ~ 2026.02.17)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